

75년만에 주인 찾은 화랑무공훈장...전수식 개최

6·25참전 유공자 강진 고(故) 윤학현 일병

강진군은 최근 대구면사무소에서 6·25참전 유공자 고(故) 윤학현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에는 유족 운영창치를 비롯해 대구면 이장단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조국을 지킨 고인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고 윤학현 일병은 무공훈장 수여가 결정됐으나 6·25 전쟁 당시 혼란 속에서 훈장이 전달되지 못하고 70년 넘게 미전달 상태로 남아 있

었다. 지난 2019년 제정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특별법과 육군본부 산하 조사단의 추적과 탐문을 통해 유족을 확인하고 이번 전수로 이어지게 됐다.

유족 운영창 씨는 “잊힌 줄만 알았던 아버님의 이름이 다시 불러지고 그 공로가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격스럽다”며 “훈장이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가족과 지역, 나라 전체의 자긍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낄



고(故) 윤학현 일병 유족에게 6.25 참전자 화랑무공훈장이 전달됐다. /강진군 제공

수 있는 순간”이라고 밝혔다.

/강진=김경선 기자



고향사랑기부 기탁식
나주 영산인 장학회원님들의 고향사랑기부 동행을 응원합니다.

영산인 장학회, 나주고향사랑기부금 2500만원 기탁 나주시는 최근 영산인 장학회 회원들이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고향사랑기부금 2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호 기자

북구,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 원’ 기부

한 달 만에 ‘1억 원’ 돌파...주민·공직자·기업 등 각계 온정



북구가 영남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1억여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28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북구청에서 문인 북구청장, 박재홍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기탁식이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액은 역대 최약이라고 평가받는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의 이웃을 돕고자 마련됐다.

지난달 27일 산불 피해 지역이 신속하게 복구되기를 바라는 지역주민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주민, 공직자, 단체, 기업 등 지역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

가 이어져 한 달여 만에 1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이게 됐다.

이는 광주 자치구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이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 주민 긴급 생계 지원비 및 피해 지역 복구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달 말 화마로 인해 대피소에서 생활 중인 경남 산청, 하동과 경북 청송, 영덕 등의 이재민에게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바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모금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북구에서 보내는 온정이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진상면,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 행사 성료



광양시 진상면은 한국향만물류고등학교 강당 및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700여 명을 모시고 ‘제53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 행사’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상면청년회는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경로위안 행사를 마련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진상면 기관·단체장 등이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퓨전 장구 난타, 풍물단 공연, 효행자 표창 ▲장수상·장한어바이상·효부상 표창, 어버이 은혜 감사 큰절 올리기, 퓨전 국악 공연, 인기가수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이 진행됐다.

서병성 진상면청년회장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나온 삶에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병남 진상면장은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진상면청년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젊은 세대가 성장할 수 있었다. 젊은 세대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버이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시교육청 ‘광주 토론·논술학교, NDD 교육과정’ 개강

‘대입 논술 전형 및 학종’ 통합 솔루션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6일 광주시 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소강당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까지 고등학생을 위한 맞춤형 토론·논술

학교 NDD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NDD 교육과정은 대입 면접과 논술 전형에 대한 전문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표현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 궁극적으로 대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과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4명 대상으로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총 34시간 2학점, 심화된 학습으로 진행된다.

대입 면접 및 논술 전형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 경험과 능력을 갖춘 현장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모둠별 토의·토론학습 및 개별 맞춤형 논술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교육은 ▲대입 논술 및 면접 전형의 이해와 전략 ▲논제 분석 방법 ▲논술문 작성 ▲기출문제 분석 ▲면접 및 발표 기술에 대한 교육 등이다.

/조선주 기자

제31회 광주 서구민상 수상자 선정

박철홍·김훈중·이미진씨 선정...내달 2일 구민의 날 시상



서구민상 수상자 (왼쪽부터) 박철홍·김훈중·이미진씨.

서구는 사회·봉사,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지역·경제 부문에서 지역사회에 헌신한 ‘제31회 서구민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구민상은 주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서구민에게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수상자는 ▲사회·봉사 부문 박철홍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김훈중 ▲지역·경제 부문 이미진 씨 3명이다.

사회·봉사 부문 수상자 박철홍 씨는 ㈜골드클래스 회장으로, 착한

지시절에 차량 지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정에 치과 진료 지원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했다.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부문 수상자 김훈중 씨는 금호1동 자원봉사팀 프장으로, 마을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에 10여 년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지역·경제 부문 수상자인 이미진 씨는 ㈜대명엘리베이터 대표이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장으로 서구어너스 회원이다.

/조선주 기자

퇴직 교사 부부, 수완고에 한국화 기증

김광옥·임혜숙 부부...300호 크기 작품 ‘시창청공’



미술교사 부부가 퇴직 전 근무했던 수완고등학교에 한국화 작품을 기증했다.

수완고등학교는 지난 25일 교내 본관에서 기증자 김광옥·임혜숙 작가 부부, 정종재 교장 등 학교 직원, 학생회·학부모회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작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기증 작품은 300호 크기의 한국화 대작으로 제목은 ‘시창청공’이다. ‘시창’은 마음의 창문, ‘청공’은 맑고 깨끗한 갯줄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마음 창문에 비치는 청아한 물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선주 기자

작품을 기증한 김광옥·임혜숙 부부 작가는 창밖의 꽃들이 아름다움을 자랑하듯 수완고 학생들이 맑고 어여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완성했다.

김·임 작가는 중등 미술교사이자 현역 작가로 활약하다 지난 2020년과 2025년 각각 수완고 근무를 끝으로 정년 퇴임했다.

두 작가는 합평에 귀촌해 2006년 잠월미술관을 개관해 마을 노인들의 문맹퇴치 교육에 헌신하기도 했다. 또 임 작가는 2020년 스승의 날 ‘제9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받기도 했다.

순천경찰 역전파출소, 피싱 예방 캠페인

순천농협 조곡지점·순천농협 여신센터 합동 운영



순천경찰서 역전파출소는 관내 순천농협 조곡지점, 순천농협 여신센터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순천역 주변 등에서 펼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피싱범죄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전일채 역전파출소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교묘해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범죄 수법을 미리 알고 예방하는 게 최선이며,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보안어플(시티즌코난 등)을 설치해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